



# 2026학년도 KU모의논술 인문 문제지



※ [문제 1]: [가]를 바탕으로 [나] 자료를 분석하시오. (401~600자)

※ [문제 2]: [다], [라]와 관련지어 [마] 주인공의 변화를 논하시오. (801~1,000자)

##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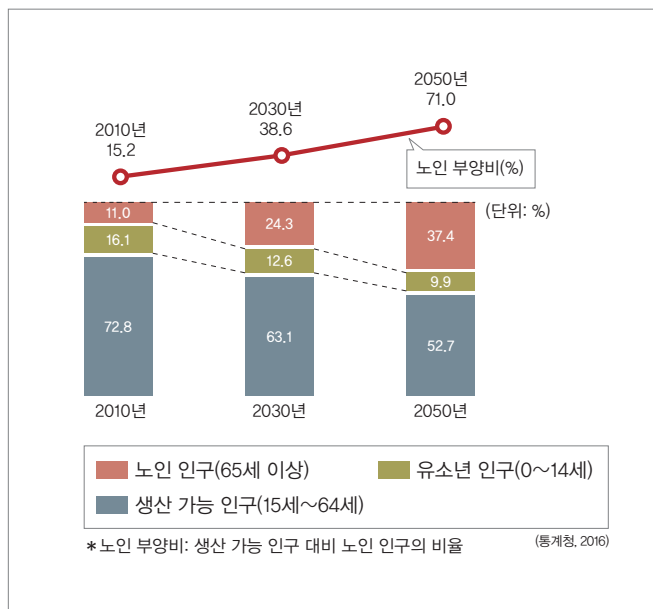
우리는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하나의 관점만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간적·공간적·사회적·윤리적인 관점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시간적 관점이란 우리 삶의 모습을 '과거'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대적 배경과 맥락에 초점을 두고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중략) 사회적 관점은 특정한 사회 현상을 사회 제도 및 사회 구조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중략) 윤리적 관점은 도덕적 가치 판단과 규범적 방향성에 초점을 두고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과 문제를 이해한다. (중략) 사회 문제를 특정한 관점으로만 분석하여 해결책을 찾으려 하면, 그 문제의 속성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어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 문제를 탐구할 때에는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 등을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 고등학교 「통합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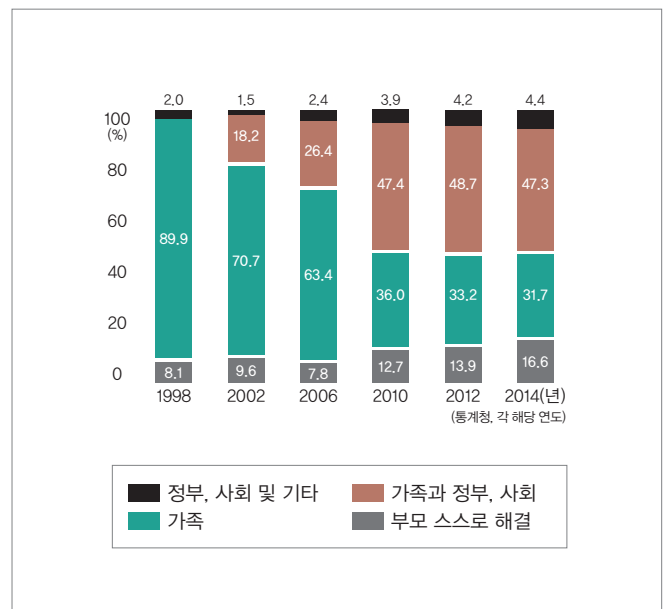
## [나]

(1) 우리나라 노인 부양비 및 인구 구성비 추계



- 고등학교 「사회·문화」

(2)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 의식의 변화



- 고등학교 「통합사회」

## [대]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처음에 얼마만큼 사겠다는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서 위아래로 조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사과 세 개를 사려고 슈퍼마켓에 간 사람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략 그만큼의 사과를 사게 된다. 갑자기 생각을 바꿔 열 개나 스무 개를 사는 일은 아주 드물다는 말이다. 이때 소비자는 사과 세 개에 닳을 내린 셈이다.

치약을 사러 슈퍼마켓에 간 소비자가 처음 닳을 내린 구입량은 한 통 많아야 두 통 정도일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치약 가격만 낮춘 경우에는 소비자가 치약 여러 통을 구입할 가능성이 적다. 반면에 5통의 구입 한도를 설정해 놓으면 소비자의 닳은 5통으로 옮겨지게 된다. '5'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이만큼의 치약을 살까 말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이 사람의 닳이 '1'에서 '5'로 옮겨졌다는 것을 뜻한다. 한 통을 사려던 사람이 이 닳 내림 효과 때문에 결국 네댓 통의 치약을 장바구니에 집어넣는 일이 생긴다.

(중략)

비단 물건을 사는 일뿐 아니라, 다른 많은 일에서도 닳 내림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 즉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거기서부터 생각을 시작하는 경향을 보일 때가 많다. 연봉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직장을 찾는 사람의 경우가 그 좋은 예이다. 이런 사람은 어떤 곳에서 얼마만큼의 연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으면 원래 자신의 기준과 비교해 그것이 괜찮은지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연봉에 닳을 내린 사람은 마음에 드는 직장을 찾기 어렵다.

- 고등학교 「국어」

## [래]

내친김에 어느 날부터 나는 걷기로 했다. 버스 안에서 차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을 움직여 겪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이를테면 디지털에서 아날로그의 변환이라 할 만한 사건이었다. 이런 변화 또한 나이가 들어가는 증상이라면 딱히 할 말이 없다. 하지만 그런들 어떨까. 제아무리 미식가라 할지라도 한국인이라면 결국 토속 된장과 묵은 김치로 입맛이 돌아오기 마련이다. 아무튼 틈나는 대로 나는 걸었다. 그동안 무심히 보아 넘겼거나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걸으면서 나는 느꼈다. 거리에서, 시장을 오가면서, 빌딩 계단을 오르면서, 이발소를 다녀오면서, 혼자 오래된 식당에 들어가 앉아 묵은 김치로 끓여 낸 찌개를 먹으면서, 노인들이 드나드는 허름한 동네 목욕탕에 다녀오면서……. 그러면서 나는 '본다와 '겪다'의 차이를 깨달았고, 이 가속도의 시대에 오히려 거꾸로 움직이면서 그동안 잃어버렸거나 놓쳐 버렸던 많은 것들을 몸을 통해 실감 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신선하고 가슴 벅찬 것이었다.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음은 물론이고 이제야 조금은 편견 없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자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참에 한 가지 더 해보고 싶은 일이 생겼다. 다름이 아니라 아날로그식으로 사람을 만나 보고 싶다. 전화나 전자 우편이 아닌 편지나 엽서로 오랜 친구에게 소식을 전하고 약속을 청해 들뜬 기분으로 해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덤으로 답장을 기다리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왕이면 아직 옛 풍경이 남아 있는 서울의 삼청동이나 인사동 혹은 광화문 언저리에서 만나기로 한다. 언젠가 그곳에서 만난 적이 있었던 사람이면 더욱 좋겠지. 그래 오늘 밤은 그동안 소원했던 친구에게 엽서라도 한 통 써야겠다.

-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 [마]

※ **앞부분의 줄거리** : 아파트 2층에 사는 회사원 '공'은 승강기를 이용하지도 않는데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된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관리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한다. '공'은 긴급 주민 총회가 안내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교체 비용 부담이 부당함을 이야기하지만, 관리소장은 승강기 교체 비용 납기일이 다가오고 있고, 계약금을 이미 지불했다고 하며 '공'의 의견을 묵살한다.

“승강기를 안 쓴다는 증거 있습니까?”

관리소장이 승강기의 '기' 자에 힘을 주며 말했다.

“네?”

공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커진 한쪽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더 커졌다. 관리소장의 먹살을 잡지 않기 위해 공은 젓 먹던 힘까지 쥐어짜야 했다. 뭐라고 சொ야붙이고 싶었지만 너무 어처구니가 없이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공은 코를 실룩거리며 관리소장을 노려보았다. 관리소장은 눈만 뒤룩거리기 뿐이었다. 아직 볼일이 남았느냐는 태도였다. 뻔뻔해진 공의 얼굴이 파랗게 달아올랐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작작 하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래 봤자 소용없을 게 뻔했다. 눈앞에 버티고 있는 벽을, 억지를 부리는 벽을 부숴버리고 싶었다.

“증거를 대면 될 거 아닙니까?”

관리비 고지서를 낚아챈 공은 관리 사무소를 빠져나와 곧장 집으로 향했다. 사용하지 않는 증거를 대라고? 끝까지 해보자는 거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공은 순식간에 문서를 작성했다. 엘리베이터에서 공을 본 적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글을 적고 서명 받을 표를 덧붙였다. 출력한 문서를 들고 집을 나서는 공의 심장은 빠뜨름한 세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다.

이번에도 공은 203호의 초인종부터 눌렀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아직도 여행 중인가. 초장부터 김이 땀지만 굴하지 않고 1층으로 내려갔다. 지난번에도 203호만 빠졌으니까. 적어도 일관성은 있는 셈이었다. 103호는 출석을 저조로 주민 총회가 무산된 것에 분통을 터뜨리더니 자기도 서명을 받아야겠다고 씩씩거리며 사인했다.

105호는 주민 총회가 언제 열렸느냐고 물었다.

“어제 저녁에 열렸답니다. 안내문도 붙이고 했다는데요.”

“안내문은 못 봤는데.”

“방송도 했다는데요.”

“.....”

“낮에 여러 번 했답니다.”

105호는 대꾸가 없었다. 공은 이제 침묵이라면 질색이었다.

“서명은.....”

“애 아빠와 상의해 보고요.”

“지난번에는 해 주셨습니까?”

“이건 다른 문제니까.”

“제가 엘리베이터에 타는 걸 본 적이 없습니까?”

“그거야 그렇지만.”

“그럼 서명 안 하실 이유가 없습니까?”

“그래도 이견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안내문은 구경도 못했는데....., 아들! 아들은 봤어?”

105호 여자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까무잡잡한 사내애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요전 날 엘리베이터에서 코를 후비며 공을 뺏히 쳐다보던 녀석이었다.

“보세요. 안내문은 구경도 못했다고 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공은 힘없이 발길을 돌렸다.

“안 타세요?”

양복 차림의 젊은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붙든 채 물었다.

공은 무심코 엘리베이터에 오르려다 멈칫했다.

“안 탑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것을 지켜보며 공은 낭패를 당할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공은 계단을 꼭꼭 밟으며 3층으로 올라갔다.

303호는 아이들만 있어서 서명을 받지 못했다. 305호 초인종을 누르자 앞치마 차림의 할아버지가 푸들을 안은 채 문을 열었다. 푸들이 공을 향해 짓는 시늉을 했지만 킁킁대는 소리만 났다. 305호가 무슨 일이라고 묻자 공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보시오. 젊은 양반. 왜 이 녀석 먹을 판 줄 아소? 가족을 생각해서요. 한 지붕 아래 살면 가족이란 말이오. 가족이 사는 집을 수리하는데 나 몰라라 하면 되겠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이건 다른 문제겠습니까?”

“젊은 양반은 이 녀석이 짓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를 거요. 이 녀석 먹을 따고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시오? 아직도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는 꿈을 꾸던 말이오. 할망구가 그렇게 전원주택 타령을 했는데....., 할망구가 허망하게 갈 줄 알았다면 이 녀석 짓는 소리라도 녹음해 둘 걸.”

푸들의 머리를 어루만지는 305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문서를 찢은 손이 슬그머니 내려가기가 싫더니 공은 도망치듯 4층으로 올라갔다.

4층에서도 소득은 없었다. 403호는 부재중이었고 405호는 가족들에게 다 확인해야 서명해 줄 수 있다며 자정쯤 다시 오라고 했다. 따지고 보면 틀린 말도 아니었기에 공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5층으로 올라가는 공은 몸도 마음도 천근만근이었다. 극심한 피로감이 어깨를 짓누르고 발목을 붙들었다. 달랑 한 집의 서명밖에 얻지 못했다는 사실에 맥이 풀렸다. 오늘은 이쯤 할까 싶었지만 관리비 납부 마감에 내일이니 오늘 밤에 끝장을 봐야 했다. 안내문을 붙였다고? 새빨간 거짓말. 통로 어디에도 안내문은 보이지 않았다. 공은 새삼 관리소장에 대한 분노로 치를 떨며 꾸역꾸역 계단을 올라갔다.

사달이 난 것은 12층에서였다. 1203호 여자는 공이 설명하는 내내 팔짱을 풀지 않더니 공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뜸 소리쳤다.

“아저씨, 아파트 시세 떨어지면 책임질 거예요?”

“아파트 시세랑 무슨 상관입니까?”

공이 항변했지만 1203호 여자는 눈도 깜짝 안 했다.

“막말로 낡은 엘리베이터 때문에 사고 나서 누가 죽기라도 하면 그쪽이 책임질 거냐고요?”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엘리베이터를 바꾸지 말자는 게 아니잖습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서명 받으러 다니는 그쪽이야말로 지나친 거 아니예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를 쓰지도 않는데 교체비를 무는 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깟 교체비 대신 내줄 테니 괜한 분란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중략)

1303호는 응답이 없었고 1305호는 문에 대고 용건을 말하게 하고서 바쁘니 나중에 오라며 코빼기도 안 비쳤다. 이제는 실망이나 분노조차 느낄 수 없었다. 다만 지치고 피로했다. 공은 한숨을 쉬며 다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두 층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거리였다.

1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에서 공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한쪽 장딴지에 경련이 일더니 힘줄을 쥐어뜯는 듯한 통증이 엄습했다. 공은 두 손으로 장딴지를 주물렀다. 미친 듯 장딴지를 주무르는 공의 입에서 연방 신음이 새어 나왔다. 급기야 공은 볼펜으로 장딴지를 냅다 찔렀다. 통증이 주춤하는가 싶었지만 잠시뿐이었다. 다시 볼펜으로 장딴지를 힘껏 찔렀다. 주춤했던 통증이 다시 고개를 들 때마다 찌르고 또 찔렀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식은땀이 자꾸 흘러내려 눈이 따끔거리고 쓰렸다. 장딴지의 통증보다 눈의 쓰라림이 더 서러웠다. 눈의 쓰라림보다 저기 바닥에 뒹구는 앙상한 서명지가 더 서러웠다. 13층까지 고작 세 집이러니. 기력이 다 빠져나간 듯 발치에 떨어진 서명지를 집어 들 엄두가 나지 않았다. 머리를 가눌 힘조차 없었다. 공은 머리를 무릎에 묻었다.

땡. 아래쪽에서 들리는 소리에 공은 고개를 들었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텅 빈 엘리베이터를 공은 망연히 들여다보았다. 닳을 대로 닳은 바닥, 얼룩덜룩한데다 금까지 간 거울, 금을 따라 붙여 놓은 노란 테이프. 특별한 구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낡은 엘리베이터였지만, 공은 예전에 본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입을 다물었다. 승강기를 안 쓴다는 증거 있습니까? 관리소장의 가늘고 낮은 목소리가 문득 귓전을 때렸다. 정말로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없을까. 한 번도 없을까. 무심결에, 실수로라도 탄 적이 없을까. 공은 남은 기력을 끌어모아 기억을 쥐어짜다. 기억해 낼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듯 엘리베이터는 꿈쩍도 안 했다. 눈앞에 버티고 선 엘리베이터 때문에 공은 초조해졌다. 엘리베이터를 탔던 기억을 떠올리는 게 절체절명의 목표라도 되는 것처럼 공은 필사적으로 기억의 근육을 쥐어뜯었다.

엘리베이터가 눈앞에서 사라지면 터무니없는 짓을 멈출 수 있을 것 같았다. 공은 엘리베이터를 노려보았다. 엘리베이터 위쪽 벽에 적힌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13. 전에는 13층에 살았었다. 순간 공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다. 기억의 밑바닥에서 뭐가 꿈틀대더니 의식의 표면을 향해 서서히 올라왔다. 10층, 11층, 12층, 13층. 땡.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엘리베이터에서 비틀대며 내린 사람은 만취한 공이었다. 전근 온 지, 이사 온 지 며칠 안 된 날, 직장 동료들이 환영한다며 부어 준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 코가 삐뚤어지고 말았지. 취중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으로 올라왔던가. 올라왔을 거야. 애먼 집 전자 키를 다그치며 마누라가 그새 또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궁얼거렸던가. 그랬을 거야. 계단에 주저앉아 머리에 무릎을 묻고 졸았던가. 그랬을 거야. 그랬어. 그런 게 틀림없어. 공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엘리베이터는 아직 그대로였다. 공은 공 소리를 내며 일어나 절뚝거리며 계단을 내려갔다. 공은 얼굴뿐 아니라 몸 전체가 삐뚤어졌다. 삐뚤어져서 계단 내려가기가 힘들었다. 계단을 다 내려오자 걷는 게 한결 수월했다. 엘리베이터가 가까워질수록 걸음걸이가 점점 자연스러워지더니 엘리베이터에 오를 때는 멀쩡했다.

2층 버튼을 눌렀지만 엘리베이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2층에 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공은 1층을 누를까 하다가 3층을 눌렀다. 계단 오르기라면 언더리가 났다. 엘리베이터 문이 뻑뻑대며 닫혔다. 엘리베이터 문에 뭔가가 붙어 있었다. 주민 총회 소집을 알리는 안내문이었다. 승강기 교체 비용 분담 건으로 총회를 소집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끼익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녹슨 도르래와 낡은 케이블이 연방 비명을 내질렀지만 어쨌든 내려갔다. 한껏 치켜 올라갔던 공의 한쪽 눈썹과 입꼬리도 엘리베이터의 박자에 맞춰 누그러졌다. 심장 위에 얹힌 무언가도 내려가는 듯했다. 마침내 엘리베이터는 3층에 당도했고 공의 얼굴은 완전히 균형을 회복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공은 더없이 즐거운 표정이었다.

— 고등학교 「국어」